“할인 행사 쏟아진다”…유통가, 가정의 달 할인 퍼레이드

광주신세계, 의류·패션용품 최대 50% 할인…어린이날 의류세트 할인
롯데백화점 광주점, 건강식품 최대 60% 할인…모바일상품권 증정도

광주 유통업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 제품 할인 및 증정 프로모션 등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해 소비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백화점 업계는 유명 브랜드 의류와 건강기능식품 등 프리미엄 상품을,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어린이 날’(5월 5일)을 겨냥한 대규모 완구류 할인행사를 중심으로 고객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30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광주신세계는 오는 5월 5일까지 ‘시즌소품 GIFT전’ 행사를 열고 운동화, 샌들, 스카프, 벨트 등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의류 및 패션용품들을 최대 반값 할인하고 있다.

프리미엄 덴마크 신발 브랜드인 ‘에코’는 지난 S/S시즌 상품을 40% 할인하며, 여성용 샌들과 스니커즈 등으로 유명한 ‘스타카토’ 매장에서는 인기 상품들을 50% 할인 판매한다.

광주신세계 ‘닥스’ 매장에서는 선물용 스카프, 지갑, 핸드백 등 다양한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5월 5일까지 본관 6층 아동복 매장에서 ‘어린이 날 기념세트’도 할인한다. 광주신세계는 기념세트가 어린이 날을 맞아 자녀 선물을 고민하는 부모들을 위한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캉골키즈’는 쿨맥스 티셔츠와 반바지, 양말로 구성된 기념세트를 기존 대비 24% 할인 판매한다. ‘블루독베이비’의 베이비 수영복은 29%, ‘프랜치캣’의 여름 티셔츠, 반바지 세트는 38% 저렴한 가격에 내놨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건강기능식품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광주점은 5월 1~8일 지하 1층 각 본매장에서 ‘건강기능식품 선물 제안전’을 열고, 최대 6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행사 기간 중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인 ‘GNC’와 ‘마더네스트’는 비타민과 홍삼 등 제품을 대상으로 ‘1+1’행사를 진행한다. ‘천제명’은 홍삼 농축액과 흑삼순액 등을 60%, ‘동국제약’은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들을 최대 50%까지 할인한다.

광주점은 구매금액대별로 증정 프로모션도 펼친다. 행사 기간 중 건강 단일브랜드에서 10만원 이상 구매 시 롯데모바일상품권 5000원권을 증정한다.

광주·전남 대형마트 업계에서도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등 선물 수요가 많아지는 5월 대목을 맞아 다양한 할인 행사에 나섰다.

이마트 광주점은 오는 5월 6일까지 마이멜로디, 캐치티니핑 등 인기 캐릭터 완구를 선보이는 ‘캐릭터 완구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마이멜로디와 쿠로미 캐릭터를 활용한 가방걸이와 인형을 동시 구매 시 20% 할인 판매한다.

또 티니핑 크레인 캡슐뽑기, 티니핑 셀레스티얼 캐슬, 빙글빙글 티니핑 놀이터 등 다양한 ‘캐치!티니핑’ 캐릭터 상품들도 준비했다.

롯데마트도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7일까지 ‘해피패밀리데이’ 행사를 전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레고, 헬로카봇, 산리오 등의 브랜드가 인기 완구와 전자게임 등을 최대 40% 할인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30일 광주신세계 블루독 베이비 매장에서 직원이 고객에게 베이비 수영복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캠핑의 계절 돌아왔다”

지난 30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캠핑 의류, 피크닉백 등 다양한 캠핑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점은 봄을 맞아 캠핑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카카오프렌즈, 헬로키티 등 인기 캐릭터와 콜라보레이션한 캠핑 제품들을 추천하고, 오는 5월 6일까지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럭키 드로우’ 행사도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치킨·돼지갈비…‘K-외식’ 필리핀 시장 사로잡다

aT,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1300만 불 규모 계약 상담 성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지난 25~27일 필리핀 마닐라 SMX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 프랜차이즈 아시아 필리핀’ 박람회에 참가해 우리나라 외식 브랜드의 현지 진출을 지원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프랜차이즈 아시아 필리핀은 글로벌 브랜드와 투자자, 예비 창업자들이 참여하는 동남아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박람회다. 이번 박람회에는 한국, 싱가포르, 태국 등 세계 여러 국가의 310개 브랜드가 참여했다.

특히 aT는 치킨, 한식, 디저트류 등 8개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과 함께 한국관을 구성하고, 현지 입맛을 반영한 브랜드별 메뉴와 사업모델을 선보였다.

한국관은 K-푸드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를 확인하고자 하는 현지 외식업 관계자들의 상담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시식행사를 통해 선보인 국내 프랜차이즈 ‘돼지갈비’는 바이어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aT의 현지 컨설턴트 지원을 받은 국내 외식기업들은 해외 바이어와 1:1 매칭 상담을 통해 업무제휴, 브랜드 확장,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그 결과 박람회 기간 중 총 80건의 상담과 1300만 불 규모의 계약 상담 성과를 기록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어린이날 선물 고민 해결”…광주신세계 ‘아이큐박스’ 팝업 진행

광주신세계는 “오는 5월 5일까지 본관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아이큐박스’ 팝업을 진행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팝업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고민하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마련됐다.

아이큐박스는 지난 1988년 설립된 유럽 완구 브랜드의 한국 공식 수입처로, 다양한 브랜드의 장난감 등 완구들을 선보이고 있다.

우선 아이큐박스의 ‘플레이 모빌’은 전 세계적인 피규어 브랜드로, 병원, 경찰, 소방서, 기사 시리즈 등 다양한 분야의 역할놀이 피규어를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팝업 매장에서는 플레이 모빌 제품을 10~30% 할인한다.

프리미엄 토이 브랜드 ‘브리오’는 북유럽 감성의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색감으로 인기가 많다. 대표 상품으로는 농장 전동기차 세트, 디럭스 기차놀이 세트, 중앙역 레일 세트 등이 있으며, 팝업 기간 중 10% 할인가에 선보인다.

또 이번 팝업에서는 자연주의 베이비토이 치발기 전문 브랜드 ‘올리앤캐롤’도 만나볼 수 있다. 올리앤캐롤은 바나나, 옥수수, 튤립 등 다양한 색상과 질감을 사실적으로 디자인한 치발기, 딸랑이 등을 판매한다. 올리앤캐롤 제품은 팝업 기간 한정으로 전상품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지구본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테크노디다타카’와 영국 인형 브랜드인 ‘돌스월드’ 제품도 구매할 수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

어버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용돈’

선물·용돈 평균 예산 29만원

롯데멤버스는 어버이날에 부모가 받고 싶은 선물과 자녀가 드리고 싶은 선물을 설문 조사한 결과 ‘용돈’이 1위를 차지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어버이날 용돈·선물 평균 예산은 29만원으로 작년보다 8만원 줄었다.

롯데멤버스 자체 리서치 플랫폼 ‘라임’(Lime)이 지난 11~12일 전국 20~60대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어버이날 선물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복수 응답)은 용돈(70.8%)이 압도적인 1위에 올랐고, 의류(25.1%), 여행·관광상품(24.3%), 건강식품(22.1%), 카네이션(16.7%) 순이었다.

어버이날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선물 1위도 용돈(83.9%)이 가장 많았고 건강식품(52.1%), 의류(32.5%), 건강가전용품(20.1%), 여행·관광상품(16.9%) 순으로 나타났다.

어버이날 선물 혹은 용돈을 드릴 계획을 묻는 말에는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56.8%를 차지했다.

함께 진행한 어린이날 관련 설문에서는 ‘선물이나 용돈을 줄 계획’이라는 응답이 34.8%로 나타났다. 어린이날 주고 싶은 선물은 용돈이 1위를 차지했고 의류, 게임기, 완구, 디지털 기기 등이 순위를 차지했다. 예상 지출 비용은 11만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연합뉴스